

# 나무를 병풍삼고 앉아 바다를 굽어보네



미황사 조망

한국불교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 전진(前秦)에서 육로를 통해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전개된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그에 훨씬 앞서 허황후와 함께 들어온 가야불교 이야기가 있고, 남해안과 서해안에 인접한 여러 고찰의 창건사에도 불교의 남방전래설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의 창건사도 남방에 인연을 두고 있다.

<미황사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 들배 한 척이 많은 경전과 불상 등을 모시고 산 아래 사자포구에 들어왔다. 그 날, 장건주 의조 대사 곱에 자신을 우전국(倭國, 인도) 왕이라고 밝힌 금인(金人)이 나타나 경(經)을 봉안하고 절을 세우라고 했다. 이 창건설화는 당시의 불교가 중국에서 육로를 통한 도래 말고도,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미황사를 품은 달마산은 대흥사가 있는 두륜산의 줄기가 서남진하면서 세우놓은 산이다. 달마산 줄기는 이어 도솔봉을 세우고 땅끝(토막) 사자산에 이르러 푸른 바다로 몸을 감춘다. 달마산은 실악산의 공룡능선을 연상케 하는 입음이 장쾌하다. 관음봉-불연봉-떡봉-도솔봉에 이르는 입릉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파도의 포말처럼 역동적이다. 그대로가 출렁이는 파도산이다.

미황사 주차장에 내리면 경내까지는 차도와 인도로 나뉘어져 있다. 주차장과 해우소 그리고 경내에 이르는 구간은 낙엽 지는 활엽수와 난대상록수들이 반분하고 있다. 자하루를 시작으로 미황사 경내가 펼쳐진다. 자하루와 범종각은 하단에 자리하고, 중단엔 넓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향적당, 세심당, 범종각과 후원 등이 자리하고, 상단엔 대흥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당, 달마전, 삼성각, 만화당 등을 주변에 배치하였다.

미황사의 본전인 대흥보전은 영조 때 중수된 건물로, 주춧돌에 새겨진 계와 거북 등 바다생물들은 오는 이들과 바다에 담아가는 단골소재이다. 이 바다생물로 해서 대흥보전은 그대로가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되었으니, 창건설화에도 잘 들어맞는다. 문쪽에 달린 호랑나비 경첩까지, 이 모두가 부처님이 사생자부(四生慈父)임을 드러내주는 상징물이다.

두리기둥은 보길도 앞바다에 3년을 담가두었던 느티나무라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뭇결이 나이테처럼 새튼게 감겼다. 보는 사람 없는 사이에 해마다 조금씩 뒤틀리면서 모양을 달리한다. 나무는 죽어서도 그렇게 늙어간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흥보전 기둥이 흰개미의 공격을 받아 곳곳에 아픈 생채기를 드러내고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늦가을, 기온이 내려가면 성층으로 겨울을 나는 노린재나 무당벌레 종류들은 보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대흥전과 같은 전각 내부는 그들에게 더없이 좋은 안식처가 된다. 썩덩나무노린재 한 마리가 기둥에 붙어서 대흥전 내부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명부전 안에는 은행나무로 빛은 시원상이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자 국보 '자화상'을 그린 공재 윤두서가 절 부근에 있던 은행나무를 베어 조성했다고 한다. 응진당은 경내에서 가장 높은 전각이라 바다를 굽어보는 눈맛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생태하는 이들은 그런 미황보다 응진전 뒤로 경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내화수림대의 생태성을 더 값지게 쳐준다. 이 숲에는 산불이 경내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경내에서 일어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 선운사를 비롯해 남도의 몇몇 고찰에서도 방화벽으로 동백나

무를 심은 예가 있지만, 이곳 미황사는 동백나무 말고도 종가시나무, 생달나무, 설탕나무 등을 군락으로 조성하여 자연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설탕나무는 남쪽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상록활엽수이다. 키가 10m까지 자라고, 황갈색의 줄기를 갖고 있다. 잎은 가지에 어긋나게 달리며, 뾰족하다. 5월에 연한 황록색 꽃이 피며, 다음해 가을에 흑록색 열매가 달린다.

남도사찰답게 미황사 경내의 조경수는 난대상록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향적당 앞에 비파나무와 유자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다. 남오미자와 마삭줄, 콩짜개명굴, 쇠고기 등도 석축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응진전 앞에는 원예수종인 파라칸타가 붉은 열매를 달고, 후원으로 가는 길 왼쪽에 보리장나무가 하얀 꽃을 피웠다.

비파나무는 중국을 원산으로 하지만, 일본에서 원예종 과일나무로 가꾸어서 널리 퍼뜨렸다. 잎은 상록이며 윤기가 있다. 꽃은 가을에 피고, 열매(비파)는 다음 해 여름에 황적색으로 익는다. 비파 속에 든 씨앗으로 번식시킨다.

보리장나무는 관목처럼 보이는 덩굴나무이다.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며 비늘날이 있다. 때마침 꽃을 피워진 한 향기를 공양하고 있다. 꽃을 꺾어 부처님 앞에 올려야만 공양인가, 사중에 꽃나무 심는 일이 바로

기는 작지만 생태성이 살아 있다. 수생식물은 물론 수서곤충도 여러 종이 살고 있는 경내의 살아있는 비오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황사 부도전은 조각으로서 생태계를 보여준다. 대흥보전 주춧돌에서 보여준 계와 거북 등을 비롯한 바다생물과 각종 조류, 그리고 토끼와 다람쥐 등 포유류들이 부도에 조각되어 있다. 그야말로 태난 습화(胎卵濕化) 사생(四生)이 다 모여 또 다른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도전 주변으로 몇 그루의 큰 종가시나무가 서 있고, 그 밑에 도토리들이 흩어져 있다. 참나무 하면 낙엽활엽수를 생각하지만, 상록 참나무도 있다.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이 모두 상록참나무이다. 종가시나무는 상록활엽수로,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배달삼거리에 으르면 문바위-봉화대(불연봉)-관음봉까지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거친 입릉이 이어진다. 높이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식물 분포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능선에 이르면 아래쪽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난대상록수들은 배어낸 듯 사라지고, 졸참나무, 소사나무, 때죽나무, 철쭉, 진달래 등 낙엽활엽수들이 강한 바닷바람에 몸을 한껏 낮추고 있다.

문바위 일대는 달마산 입릉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을 보여준다. 문바위에서 미황사로 하산하는 산행로가 있고, 봉수대로 이어지는 입릉로가 있다. 군

## 응진전 뒤로 내화수림대 형성 경내 산불 진입 방지 경내 연못엔 다양한 수생식물·수서곤충 등 서식

꽃망울 향공양이 아니겠는가. 경내 초본으로는 향적당 뜰에 단풍이 노란 꽃을 피웠고, 대흥보전 뒤로는 머위와 파죽이다. 대흥보전 옆 화단에는 배롱나무가 빨간 열매를 달고, 연못가에는 공궁이가 늦게까지 꽃을 피우고 있다. 자하루 아랫단에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꿀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귀뚜라미로 불리는 불사 과정에서 들어온 주홍서나뭇과 미국가막사리 등이 관찰되었지만, 다른 사찰에 비하면 종류와 개체수 모두 적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황산에도 여러 유혈목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파충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파충류들은 동면에 들어 관촬되지 않았다. 대흥보전의 석축 아래 불두와 나뭇가지에 뱀의 허물이 걸려있다. 나무를 잘 타는 누룩벌레를 벗을 때 물의 거친 부분이나 나뭇가지 사이에서 머리 부분의 허물을 걸리게 하여 나머지 허물을 벗어낸다고 한다.

수종이 다양한 만큼 미황사 주변엔 새들이 많다. 늦가을이라 동박새, 직박구리, 어저, 쇠딱따구리 등 텃새들만 관찰되었지만, 기후가 따뜻하여 때가 되면 여름철새들이 많이 날아든다고 한다.

경내에 몇 개의 연못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눈길에서 벗어나 갖가지 곳에 자리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모양새도 수더분하고 천연덕스럽다. 비록 크

데군데 조릿대들이 왕성한 기세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릿대 군락은 달마산 사면에 두루 퍼져 있다. 조릿대는 키가 작아서 주위의 나무들이 낙엽을 떨근 겨울에 더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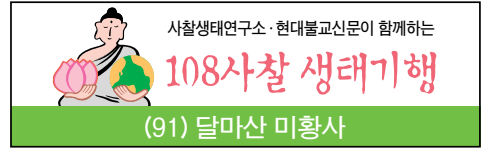
봉화대에서 헬기장을 지나 미황사로 이르는 구간구간에 이따금 너털지대가 지나간다. 군락으로는 서어나무, 졸참나무, 가시나무 군락이 있다. 이 구간의 큰키나무로는 소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말채나무, 개암나무, 대팻집나무, 사람나무, 팔배나무, 털팽나무, 비목, 해송, 굴피나무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까마귀잡나무 등 난대상록수들은 주로 헬기장 아래에 어우러져 있다.

지네고사리와 쇠고비를 비롯해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몇 종류의 양치식물도 눈에 띈다. 지네고사리는 생김새가 지네발을 연상케 한다.

해가 저문다. 사자포구 멀리 노을이 깔리고 있다. 해 떨어지는 자리에서 옛 선지식이 남긴 일몰관(日沒觀)이 떠오른다.

欲往西方九品蓮 극락에 나고자 하는가.  
但觀落日如應鼓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라.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cafe.daum.net/templeeco



보리장나무.



설탕나무.



종가시나무 열매.



썩덩나무노린재.



지네고사리.

www.kukbukarma.com

###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볼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볼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착율이 높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굽어주면 된다. 또한 굽은 자리에 붙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자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 서 바깥쪽으로 굽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발행처: 국부카르마  
한권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 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증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부카르마** 문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 불타암)

www.sungjonga.co.kr

##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광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생물의계설비중심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작위시와 실제 당작위시가 잘 일치하여 당작 기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전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희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사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a.co.kr / E-MAIL: sungjonga@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광식(종교부령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